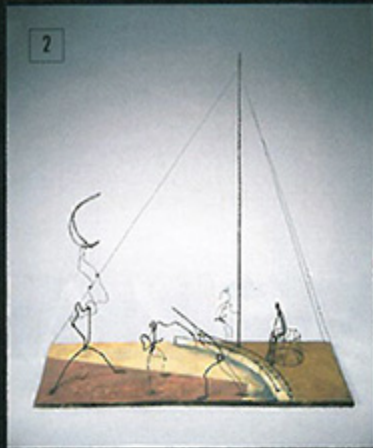


ALEXANDER CALDER



알렉산더 칼더 《칼더의 서커스 가운데》 작은 어릿광대, 트럼펫 연주자, 그리고 수염난 여자(Little Clown, the Trumpeteer, and Bearded Lady from Calder's Circus)
1926-1931 철사, 천, 물감, 방직사, 실, 모조 다이아몬드 단추, 절연 테이프, 고무 튜브, 금속 나팔
28.3×16.5×8.3cm 뉴욕 휘트니미국미술관 소장 Photo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Photograph by Sheldon C. Collins



ALEXANDER CALDER

<칼더의 서커스(Calder's Circus)>(1926-1931)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는 움직이는 현대 조각, '모빌(mobiles)'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실제 연오는 여느 현대미술가들과 같지 않다. 알렉산더 "샌디" 칼더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런튼(Lawnton)의 미술가 집안에서 타고 자랐지만, 현대성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캐릭터가 아니었고, 평생 즐겁게 놀면서 작업했는데, 그 결과와 성취가 위대했더라는 말씀이다. (비고: 모친 내니 리더러 칼더는 전문적 추상화가였고, 부친 스티븐 칼더는 공공 조각으로 이름난 조각가였으며, 스코틀랜드 이민자인 조부 알렉산더 밀러도 기념조상 제작으로 일가를 이룬 인물이었다.)

후대의 눈으로 칼더가 남긴 거대한 공공 조각 모빌(혹은 스태빌)을 보면, 그도 여타 현대미술가들처럼 고뇌의 시간을 보낸 덕에 이런 성취를 거뒀을 것만 같기도 하다. 하지만, 칼더는 운이 무척 좋아서 인생에서 큰 굴곡을 겪은 바도 없고, 예술계에서 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은 일도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1915년 스티븐스 공대에 진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19년 졸업한 청년 칼더는, 몇 년간 이리저리한 엔지니어 직업을 전전했다. 하지만 1923년 미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뉴욕의 아트스튜던트리그(Art Students' League)에 입학한다. 학창 시절엔 주로 회화와 드로잉 등 평면 작업에 몰두했지만, 1925년 미술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동물원에 매료돼 동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수 백점의 드로잉을 그려 책—《동물 스케치하기(Animal Sketching)》(1926)—으로 묶어냈다.

무명작가의 숨어있던 조각적 재능이 꽃을 피운 것은, 1926년 파리로 이주하면서부터. (1933년까지가 파리에 거주하며 창작했던 시기다.)

1925년 뉴욕에서 잠시 잡지 <내셔널폴리스가제트>의 삽화가로 일했던 칼더는, 소묘 취재차 바넘앤베일리서커스(Ringling Brothers and Barnum and Bailey Circus)의 공연을 보게 됐는데, 곡예사와 동물들의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서커스의 세계에 푹 빠진 칼더는, 1926년 파리의 몽파르나스에 작업실을 차리고, 나무토막과 일상적인 물건들을 철사로 엮어, 곡예사와 이국적 동물, 전차 등을 제작해 미니어처 서커스 세트를 꾸었다. 해맑은 마초 남자였던 칼더는, 직접 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차례로 조각을 움직여 보면서 새로운 서커스를 펼쳤고, 파리의 쿿대 높은 문화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는 즉각 새로운 볼거리로 입소문을 탔다.

칼더가 시연하는 미니어처 조각 서커스의 동영상 기록을 보면, 조각가는 완전히 상황에 몰입해 보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소 지루한 부분에서도 전혀 민망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가 제작한 미니어처 조각들이, 공간에 구현한 드로잉이라는 사실. 그가 1925년에 그린 서커스 드로잉과 비교해보면, 동세를 강조하는 간단한 필획이, 그대로 다양한 굵기의 철사로 구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명세를 얻은 귀염둥이 신인 조각가 칼더는, 이후 7년간 파리에 머물며 마르셀 뒤샹, 호앙 미로, 피트 몬드리안, 장 아르프 등 프랑스의 대표 현대예술가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큰 영감을 준 이는 네덜란드 출신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이었다. 1930년 10월, 몬드리안의 작업실을 방문했다가 원색의 사각형들이 흰 벽면에 걸려있는 장면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것. 몬드리안의 추상 조형 실험에서 영감을 받은 칼더는, 처음 2주간은 추상 회화를 그려보다가 이내 추상 형태의 색면을 매달아 움직이는 조각을 제작하게 된다. (당시의 습작을 보면, 몬드리안 풍의 추상화도 있고, 호앙 미로풍의 초현실주의 그림도 있다.)

1931년 4월 칼더는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추상 조각 작업을 발표한다. 첫 추상 조각 연작들은 주로 철사와 작은 구체로 구성됐는데, 애원한 페더스를 모델로 한 <작은 페더스>를 보면, 추상이지만 강아지의 동세를 포착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즉, 초기의 서커스 조각에서 유희적 동세 탐구의 경향이 이어지고 있었던 셈. (이러한 점을 영두에 두고 후대의 걸작들을 보면, 모두 추상화한 서커스의 한 장면처럼 보기도 한다.)

"모빌"이라는 신조어는 마르셀 뒤샹이 1931년 하반기 지어냈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1932년의 일.) 칼더가 개인전 직후 모터와 크랭크를 이용해 움직이는 조각을 제작하자, 이에 '모빌'이라는 이름-프랑스어에서 모빌에 모터란 뜻이 있어서 벌인 말장난이기도—을 생각해낸 모양. 하지만, 1931-1932년 처음 '모빌'이란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요즘과 뜻이 달라서 '키네틱 아트'—주로 모터나 엔진으로 움직임이 발생하는—를 총칭하는 말이었다.

1932년 칼더는 오늘의 통념에 부합하는 '모빌', 즉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매달린 형태의 균형 잡힌 추상 조각-1931년 하반기에 제작하기 시작한—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본 조각가 장 아르프는, 그에 대비되는 자립 구조의 정적 조각을 "스태빌(stables)"이라고 칭하며 다소 냉소적인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순진무구한 칼더는 사르캤증이나 말장난에 별 관심이 없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였고, 정적인 조각을 스태빌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후 칼더는 추상 조각의 세계를 심화해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이며 전성기를 맞는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자원했지만, 다행히 퇴짜를 맞았고, 45살이 되던 1943년에 최연소 작가로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여는 등, 승승장구했다. ///

추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초대형 공공 조각이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공공 미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했던 1960년대의 일. 공학 기술을 잊지 않고 있던 그는,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초대형 작업을 제작해냈고, 1960-1970년대 서구 주요 대도시 곳곳에 등장한 칼더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1. 파리 거주 시절의 알렉산더 칼더, 1930년. 당시 제작한 소형 조각 <붉은 왕소>와 제목을 알 수 없는 추상화가 눈에 띈다. 사진: Thérèse Bonney 2. 알렉산더 칼더 <서커스 장면(Circus Scene)> 1929 철사, 나무, 물감 127×118.7×46cm 뉴욕 칼더 재단 소장 © 2013 Calder Foundation, New York/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3. 알렉산더 칼더 <칼더의 서커스 가운데> 줄타기 곡예사 (Tight Rope Artists from Calder's Circus) 1926-1931 철사, 천, 흑연, 가죽, 납, 물감, 실 가변 크기 뉴욕 휘트니미술관 소장 Photo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Photograph by Sheldon C. Collins 4. 1946-1947년경 남불 방스(Vence)의 별장, '빌라 르 레베(The Villa Le Rève)'에서 종이 자르기 작업을 시연하는 앙리 마티스. 5. 앙리 마티스의 자택, '호텔 레기나(Hôtel Régina)'의 식당에 설치했던 <수영장(The Swimming Pool)>의 본 모습. 6. 2014년 10월 12일 모마에서 개막한 <앙리 마티스: 종이 자르기 작업(Henri Matisse: The Cut)>전에서 20년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된, <수영장(The Swimming Pool)>의 복원된 모습.